

Gore Museology Manifesto

죽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이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은 이미 지나갔고, 이곳에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당신은 보지 못하는 시간들 : 실린더 속에 담긴 몸과, 포르말린 속 잠겨있는 팔과 다리들의 실시간.

그 회복할수 없는 상태를 진단해본다.

윤곽선 골격

머릿결

[構造 01 : 權力的 垂直 軸]

완전히 **않은** 몸들의 숫자는 이곳이 축적해온 폭력의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는 몸과 분리된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박제된 폭력의 연속성과 내부에 형성된 담론적 코퍼스를 요구한다.

The museum is a beginning where violence learns to speak as knowledge. What you hear is what remains after violence has been made to make sense.

[RV-4857-66] meisje. zes jaar. schedel. haar. Vlechten. 회복할수 없는 죽음들 후에 오는 통각.

“앞이 보이지 않아.” 목이 없는 로르소가 이곳을 바라보고 말한다. 생각에 잠긴 얼굴, 빈 이름표를 달고있다.

삼만오천 번 부서진 눈들이 디포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몸을 따라간다.

Eyes, fragmented by thirty-five thousand losses, follow another body passing through the depot corridor.

[登錄 : TM-589-5a]

sleutelbeenderen. vrouw. human remains. 잠시 올것처럼 도착하지만 결국 떠나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동안 민족지학-식민 박물관의 디포에서 내가 매일 목격한 것은 오브제들과 함께 정렬된, 셀 수 없이 분절된 신체들이 담긴 상자들이었다. 그 뒤에는 더이상 그들은 숫자로 남을수 없었다.) The labor of the body becomes permanent. 유리병. 선반. 번호가 붙은 상자. Death's labor continues. 쉘 틈조자 없는, 사유화된 죽음들. The privatized death. 이 몸들은 자신의 코너에서 퍼즐처럼 조각들을 맞추다 등록되지 않은 다른 몸들을 끌어당긴다. 파편화된 응시,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눈. 조각들은 바깥의 살아있는 몸을 되돌려 반사한다. 이곳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의 것이 되지 못한다. 몸이 제도로 들어오는 오늘날의 전통이 시작된 장소 안. Deaths are always written in fragments.

53개의 팔.
98개의 왼쪽 다리.
12종의 피부.
이름 없는 조각들.

이 파편들은 서로의 맥락을 잃고, 다른 질서 속에 놓인다.
Formalin. Glass jars. Metal Shelves. Numbers. Climate control.

이는 백인 제1세계에서 그려오던 허셀 고든 루이스의 식인 판타지나, 18세기 고딕 소설의 분위기적 호러도 아니다.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체계다. This is not fantasy. This is a existing system. 침묵이 작동하는 신체. 다리. 팔. 조각난 몸. 탈시간적이고 탈맥락화된 신체의 파편들은 정교한 기술적 프로토 타입이 되어,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채 재화나 서비스처럼 전시된다. 이로써 세심한 기술이 다루는 파편들은 결국 서발턴의 몸의 축적이다. These fragments are evidence. Of extraction. Of accumulation

이것은 박물관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야만성이다. 허구처럼 보일 만큼 오래된 현실. 디포에 축적된 고어성을 드러내는 일은 not an act of revelation. 이 유형적 전통의 지속적인 생산을 멈추기 위한 시도다. 그 모든 것들이 삶과 죽음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Death and fear no longer belong to the individual.

여기서 고어란 내부가 외부로 드러난 상태다.

[聽覺 : Body 3 Humming]

I lost my ticket.
I lost my keys.
I lost the map.

이미 오래전에 훼손된 이름 없는 몸들이 함께 보존된다. 오브제와 인간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화된 제도 속에서 그들은 통제된 죽음의 형식으로 관리된다. 여기서 유형은 미학도, 허구도 아니다.

It is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museum. 박물관은 라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물질적 기억을 유형로서 오랫동안 관리해왔다.

You said “Prime technology is a body.”

[RV-1184-204] been. Arm.
[RV-09-677] skeletmateriaal. menselijk of dierlijk. Oceanisch.

[切斷 : steel hammer]

I want a pair of sharp scissors so I can cut the river in half.
그리고 그 절단면에 번호를 붙인다.

왼쪽.

오른쪽.

강은 두 개의 표본이 된다. 지도 위에서 선이 된다. 그리고 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So the river no longer flows. Death does not disappear. It becomes more distinct. [RV-09-94] haar. oksel. Oceanië. 썩을 수 없는, incapable of decay, Suspended life.

[RV-5675-K2436] skeletresten. soedan.

9kg hammer

죽을 듯이 일해야 하는 죽음들. Deaths that must labor as if dying. 유럽의 식민 뮤지엄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고어는 결코 메라포가 아니다. Violence is an infrastructure, the extraction and reproduction of death never ends. 그 물질을 바라보는 살아 있는 몸들 속에서 계속 재생산된다. 죽음은 이미 지난 사건이 아니며,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기록의 체계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제나 몸들의 파편을 통해 다시 읽힌다. It is always read again through the fragments of bodies.

The museum is a crime scene. But you never see the crime. Everything has been washed.

고어 뮤지올로지는 식민 박물관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구성하는 제도적 구조가 신체와 물질을 추출하고, 파편화하며, 안정화하고, 원래의 관계와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화학적으로 보존하고, 분류하며, 저장 가능한 물질로 전환하고, 마비시켜 보존하며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폭력의 존재론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드러낸다.

[抽出]
[변형]
[안정화]
[분리]
[보존]
[분류]
[전환]
[마비]

살아있는 것 들을 단순한 생명(bare life)으로 취급하는 정치.

Gore is never a metaphor. 고어 뮤지올로지는 패권적 역사와 뮤지엄의 수익성에 기반이되는 고어성을 직면한다. 살아 있는 신체와 제도의 내부의 조각난 신체 사이의 접촉과 번역을 통해 내재된 폭력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조금씩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도이다. Because the museum preserves the structure of violence.

[844-14a] foetus. Vrouwelijk. in een fles.
[217-2] foetus. Toraja.

To diagnose the body of collected bodies. 우리는 이 제도의 내부 신체를 폭력의 잔여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장소로 이해한다. The body remembers and resists because it is a body. 신체는 여전히 물질로 존재하고 몸은 몸이기에 기억하고 저항한다. In the market, fragments are converted into value, and vibrations are translated into data. 고통들의 전시성.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꾼다. 망각을 위한 기술들. 모든 것이 파편으로 돌아온다. Not by itself. Fragments remain not as memory, but as resources. The body returns, surrounded by unknown sounds.

[295-3b] tweeling. zes maanden. in een fles.

고어 뮤지올로지는 이러한 제도의 내부 신체를 폭력의 잔여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유지되는 장소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곳의 파편과 물질성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며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구상해야 한다. 분리된 신체의 파편은 한때 그 것이 속해 있던 몸의 기억을 결코 완전히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結語 : Muted]

마침내 회복은 언제나 봉인(封印) 또는 봉합(縫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 불안정한 상태를 잃지 말것.”

You say:
Let there be a refusal to recover.
Do not fully recover from whatever has just entered the body.
Stay shattered.

Note
What does it mean to narrate the museum through the lens of 'Gore'? Gore Museology is a conceptual framework I propose, recontextualizing Sayak Valencia's discourse on Gore Capitalism within the field of museology. While Valencia analyzes a system where death becomes a highly profitable enterprise and the destroyed body is relegated to a commodity, Gore Museology identifies the European colonial museum as the historical prototype of this very system. It asserts that every stage of the process from the initial collection of objectified bodies to their arrival at the museum was already executed through gore-centric methods. By exposing the existential conditions and the inherent gore of the bodies accumulated in the Depot, Gore Museology seeks to forge the language necessary to sever the continuity of this bloody tradition.